

전일동향

전일대비 5.70원 상승한 1,470.60원에 마감

28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5.70원 상승한 1,470.6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40원 하락한 1,462.5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주식 2조 원어치 이상 매도하며 상승했고, 시장 흐름을 바꿀만한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결제 및 해외투자 환전 수요가 유입돼 상승폭을 확대하며 1,470.6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10.0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1.69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62.50	1473.00	1461.00	1470.60	1465.90
엔화	937.06	942.25	934.74	941.69	-	
유로화	1698.48	1706.77	1694.61	1705.91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2.39	-6.99	-12.64
결제환율(수입)	-1.97	-5.91	-10.64	-17.44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달러 약세에...1,46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4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70.60) 대비 3.40원 하락한 1,464.7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달러 약세에도 수급 영향에 하방 경직적 흐름 보일 전망이다.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로 경제지표 발표 및 주요 이벤트 부재한 가운데 연준이 12월 FOMC회의에서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달러 약세 전망된다. 전 거래일 뉴욕증시가 조기 폐장에도 다우지수 +0.61%, 나스닥 +0.65%, S&P +0.54%를 보이며 기술주 중심 상승 마감하면서 지난 주 금요일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했던 외국인 원화 위험자산 투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한국 11월 수출이 개선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원화에 힘을 더할 요인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화와 동조화 경향이 강한 엔화가 12월 BOJ 금리인상 전망 부상에 강세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오늘 환율 하락을 점치게 만드는 대표적 요인으로 보인다. 또한, 캐나다 3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2.6% 상승 기록에 예상(+0.5%)을 크게 상회하며 캐나다 달러 강세를 보였으며, 캐나다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무역 전쟁 충격에서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는 글로벌 약달러 분위기를 주도할 전망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매수우위 수급 영향에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60.80 ~ 1470.8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0368.7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40원 ↓
	■ 美 다우지수 : 47716.42, +289.3p(+0.6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3.46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822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